

## 산조(散調) 장단의 빠르기 연구\*

김 일 룬\*\* · 박 미 정\*\*\*

산조는 한 악장 내에서 점차 빨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악곡으로서 교본과 연주자 및 공연상황에 따라 곡 연주 빠르기의 유동적 차이가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교본과 음반에 제시된 ‘산조’의 장단 빠르기를 악기별로 비교 분석하여 빠르기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국악교육 현장에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같은 장단이라도 연주자와 악기특성에 따라 한배의 변화폭이 매우 컸는데, 특히 가야금은 한 장단 내에서의 빠르기 편차가 가장 컸으며, 빠른 장단으로 갈수록 변화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관악기는 연주자 개인의 호흡과 한배의 길이에 따라 빠르기가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또 음반에 비해 교본의 빠르기 범위가 더 넓게 설정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산조, 빠르기, 템포(tempo), 장단

### 차 례

- I. 머리말
- II. 산조의 장단 특성
- III. 산조 교본의 빠르기 분석
  - 1. 발현악기 산조
  - 2. 칠현악기 산조
  - 3. 관악기 산조
- IV. 교본과 음반의 산조 빠르기 비교
- V. 맺음말

\* 이 논문은 2015년도 중앙대학교 연구 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전통예술학부 교수 · 교신저자(ilryun@cau.ac.kr)

\*\*\* 중앙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박사과정 · 연구조교

## I. 머리말

산조는 19세기말 가야금산조를 시작으로 다양한 악기의 유파가 발생하면서 현재 대표적인 기악독주곡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음악이다(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1995, p. 137). 산조는 판소리의 영향으로 변청(變淸)과 변조(變調)를 활용하며, 악기의 특성을 극대화하여 빠른 패시지(passage)를 연주하거나 다양한 음색을 구사한다(김해숙, 1987, p. 150). 이러한 음악적 특성으로 인해 산조는 연주자가 일생 동안 갈고 닦으며 완성해 가는 음악으로 인식된다.

산조에서 장단은 빠르기나 리듬 패턴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산조의 기본 틀은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로 구성되며, 느린 데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빨라지는 형태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이 느림(慢)·보통(中)·빠름(數)의 템포(tempo) 대비는 산조뿐 아니라 전통음악의 전 분야에 걸쳐 있는 것으로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김해숙, 1987). 요컨대 산조에서 장단은 음악의 구성과 형식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산조에 내재된 템포의 변화는 우리음악에서 ‘한배’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일깨워 준다. ‘한배’는 장단의 한 주기를 이르기도 하고 템포 곧 빠르기를 가리키는 용어이기도 하다(송방송, 2012). 예를 들어, ‘한배’가 길다거나 짧다는 말은 속도가 느리거나 빠르다는 의미인데, 이는 연주자나 공연상황에 따라 장단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우리음악은 메트로놈의 정확한 빠르기보다 호흡의 길고 짧음에 따라 같은 장단이라도 조금씩 다른 템포로 조절할 수 있는 특성(한명희, 1994, p. 33)을 지닌다. 특히 산조에서는 한배의 변화가 이완과 긴장을 유도하며 음악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연주자의 음악적 역량과도 직결되며 악기의 특성까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산조를 가르치는 교육현장에서는 장단 빠르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도 부족할 뿐 아니라 빠르기에 대한 기준 설정도 모호한 상황이다.

산조는 독특한 음악특징과 고도의 예술성으로 인해 초기부터 국악학에서 주목하는 연구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산조에 대한 기존 연구가 대체로 선율 연구에 치중되다보니 장단이나 빠르기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게다가 산조 장단 연구가 판소리 음악의 수용론적 관점(이보형, 1996; 유선미, 2010)에서 진행되거나 리듬형을 중심으로 논의되었기 때문에(정화자, 1984) 장단 빠르기를 검토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교육학적 관점에서 산조 장단을 활용하여 국악의 ‘한배’ 개념을 습득할 수 있는 지도 방안(김연영, 2013)이 모색되었으

나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빠르기에 대한 현황 검토가 빠져 있어서 국악전공자에게로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산조 교본 및 음반의 장단 빠르기를 검토하여 산조 장단의 빠르기가 어느 정도의 한배로 형성되고 있는지 분포상황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현·관악기의 장단별 연주 속도 차이와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구전습수로 전승되던 산조는 세계적 흐름과 소통의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대체로 오선보로 채보 정리되었다. 채보는 기보법의 종류와 채보의 목적에 따라 동일한 음악도 다르게 악보화될 수 있다. 특히 음악의 속도는 한 음악에서도 속도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며, 민속음악의 경우 그 변화의 폭이 큰 경우도 많다(최현, 2009, p. 98·124). 산조 악보는 정식 출판이 아닌 비매품으로 배부되는 경향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전공생들이 아닌 모든 대중들에게 통용될 수 있는 정식 출판된 교재를 대상으로 하여, 국공립 도서관, 대학도서관, 온라인매장을 갖춘 대형서점 등에서 소장 유통되고 있는 산조 교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겠다.<sup>1)</sup> 다만 출판된 교본임에도 불구하고 장단별 속도가 제시되지 않는 악보는 제외하겠으며, 학위 및 학술지 논문에 실린 채보 악보 역시 연구목적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배제하겠다. 한편 빠르기 말 즉, 메트로놈 표기가 명시된 악보에서 각 장단에 해당하는 속도의 변화를 정리 분석할 것인데, 채보상의 차이점과 문제점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으며, 동일한 장단임에도 장단명이 다른 경우는 두 가지 명칭을 병기하였다.

산조교본은 실제 연주를 저본으로 하기도 하고 전수 교육과정의 녹음 음원을 채보대상으로 삼기도 한다. 산조는 교육 상황이나 공연 현상이나에 따라 빠르기에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교본의 빠르기에 대해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려면 실제 연주 음원과 비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각 악기별 산조 교본에서의 빠르기를 도출한 후 이를 실제 연주음원의 빠르기와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대상으로 삼을 산조음반은 산조가 악보화 되기 시작한 시기인 1980년대의 음악으로 삼겠다. 이들 음반은 LP판에서 CD로 복각작업을 거쳐 재발매 되었는데, <대금산조, 아쟁산조>(1991), <김영재 연주 지영희류 해금산조>(1993), <뿌리깊은나무 산조전집>(1997), <한국의 전설적 가야금산조 명인>(1994), <거문고산조>(2001), <박범훈류 피리산조>(2004) 등이 비교 대상 음반이다.

1) 국립중앙도서관, 수원시립도서관, 중앙대학교도서관에 소장되거나 북스리브로와 반디앤루디스에서 유통되는 악보를 연구대상 교본으로 삼았다.

산조는 연주자의 즉흥적인 요소에 의해 빠르기가 가감(加減)된다. 그러나 각 산조마다 빠르기의 유연성과 음악해석 방법에 차이를 이해하였을 때, 더 나아가 산조의 유기적 음악 특성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악기별 장단의 빠르기를 비교함으로써 각 산조마다 빠르기의 유연성과 음악해석 방법에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산조의 유기적 음악 특성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산조의 장단 특성

장단과 빠르기는 산조의 음악적 특징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산조의 음악적 특징인 ‘만(慢)-중(中)-삭(數)’의 악곡 짜임새나 긴장과 이완의 원리는 장단과 빠르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만-중-삭’은 전통음악에서 음악의 속도를 나타내는 말로 가곡의 원형인 대엽조에서 비롯되었다. 만은 느리고, 중은 만과 삭의 중간 속도이고, 삭은 가장 빠른 속도에 의하여 연주된다. 또한 속도 변화 이외에도 만은 그 가락이 가장 복잡하고 중과 삭으로 바뀌면서 차차 그 가락이 덜 된다(장사훈, 1985, pp. 418-420).

산조의 악곡 짜임새 또한 ‘만-중-삭’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판소리가 사설 내용에 따라 장단이 결정된다면 산조는 느리게 시작하여 빠르게 몰아가는 형태라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 악기의 특성에 따라 다스름, 굿거리, 늦은 자진모리, 휘모리, 세산조시, 단모리 등의 악장이 추가되기도 한다. 악장이 추가되더라도 ‘만-중-삭’의 짜임새는 하나의 공식처럼 산조를 관통하는 형식이다.

‘만-중-삭’의 짜임새는 악곡의 전체적인 틀에서도 나타나지만 한 악장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진모리는 템포의 차이에 따라 ‘늦은자진모리-자진모리-빠른자진모리’로 ‘만-중-삭’의 형식이 또 다시 나타난다. 산조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특성은 자연의 조화와 음양의 관계가 인간계에 작용된다는 중국 고대사상인 ‘천(天)-지(地)-인(人)’의 ‘삼재(三才)사상’으로 논의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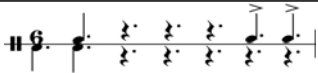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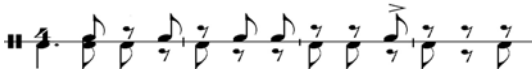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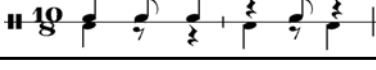
또한 선율을 최고 풀면서 구현되는 긴장과 이완의 원리 역시 산조의 빠르기에 영향을 미치는 미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진양조나 중모리와 같이 느린 장단에서는 꺾고 떨고 구르는 등의 ‘다루치는’ 주법으로 긴장감을 조성한다면, 긴장을 형성시켰던 선율에서 본청으로 중지하며 마치 귀향(歸鄉)하듯 이완감을 조성한다. 반면에 빠른 장단에서는 동음연타(同音連打, 잇단음) 주법을 사용하여, 박을 분박으로 쪼개어 동음을 촘촘히 엮어 긴장을 조성한 후 마지막 부분에서 대부분 도섭과

같은 자유 리듬으로 풀어주며 이완감을 표출한다. 이러한 음악적 특성으로 산조는 선(線)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음악으로 평가되고 있다(권오성, 2009, p. 113).

전통음악의 장단은 리듬형(Rhythmic Pattern), 빠르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3/4, 6/8 등 서양의 박자와는 개념이 다르다. 산조에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굿거리 등의 장단이 사용되며, 선율에 따라 리듬을 가감하면서 다양하게 변화를 준다. 즉 산조에 나타나는 리듬 운용은 극적 표현과 변화를 추구하는 음악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산조에 쓰이는 장단 구조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산조의 장단 구조(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1995, pp. 50-53)

| 장단   | 구조                                                                                  |
|------|-------------------------------------------------------------------------------------|
| 진양조  |    |
| 중모리  |   |
| 중중모리 |    |
| 굿거리  |  |
| 자진모리 |  |
| 동살풀이 |  |
| 휘모리  |  |
| 엇모리  |  |

진양조는 1, 중모리는 1, 중중모리·빠른 중중모리·굿거리는 1나 1, 엇모리는 1, 자진모리는 1, 단모리는 1를 기준 박으로 빠르기가 제시되어 있다. 휘모리는 1를 기준 박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나 동일한 장단명을 사용함에도 유파에 따라 1를 기준 박으로 삼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기준 박이 두 가지인 경우 더 우세하게 쓰이는 것을 대상으로 삼겠다.

### Ⅲ. 산조교본의 빠르기 분석

산조 교본은 악기에 따라 크게 현악기와 관악기 산조로 구분된다. 현악기 산조로는 가야금, 거문고, 해금, 아쟁 등 4종의 산조를 꼽을 수 있는데, 연주법이 음악의 빠르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현악기 산조의 빠르기를 연주방법에 따라 발현악기와 활현악기로 구분하여 분석하겠다. 그리고 관악기 산조로는 대금과 피리산조를 살펴보겠다.

#### 1. 발현악기 산조

##### 1) 가야금산조

가야금은 현재 산조에서 가장 많은 유파가 형성된 만큼 교본 역시 가장 많이 출판되었다. 이들 교본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유파의 악보가 꾸준히 출판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표 2>에 제시된 총 30종을 선정하였다.

<표 2> 가야금산조 교본 목록

| 순서 | 교본명           | 저자  | 발행연도 | 순서 | 교본명                  | 저자         | 발행연도 |
|----|---------------|-----|------|----|----------------------|------------|------|
| 1  | 가야금 민속곡집      | 권혁태 | 1972 | 16 | 가야금산조 창시자 김창조와 가야금산조 | 양승희        | 1999 |
| 2  | 가야금교본 (민요·산조) | 황병주 | 1972 | 17 |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오선악보      | 박성연        | 2001 |
| 3  | 가야금교본         | 원한기 | 1978 | 18 | 유대봉제 백인영류 가야금산조      | 조영애        | 2002 |
| 4  | 가야금산조         | 강순영 | 1980 | 19 | 가야금교본                | 박재희        | 2002 |
| 5  | 가야금산조         | 이재숙 | 1983 | 20 |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 성애순        | 2002 |
| 6  | 황병주 가야금교본     | 황병주 | 1984 | 21 | 김윤희 가야금산조            | 이효분        | 2004 |
| 7  | 연정가야금보        | 임윤수 | 1984 | 22 | 가야금 재밌어요!            | 정길선        | 2005 |
| 8  | 가야금산조         | 이재숙 | 1987 | 23 | 가야금의 첫걸음             | 문재숙        | 2008 |
| 9  | 가야금주법과 실습     | 성심온 | 1987 | 24 |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 이재숙        | 2008 |
| 10 |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 최문진 | 1988 | 25 | 가야금교본                | 최상화<br>엄세나 | 2009 |
| 11 | 김죽파 가야금곡집     | 문재숙 | 1989 | 26 | 함동정월류 가야금산조          | 윤미용        | 2010 |
| 12 | 현대인을 위한 가야금교본 | 김정예 | 1994 | 27 | 금암 김병호 가야금 산조곡집      | 김남순        | 2011 |

| 순서 | 교본명             | 저자  | 발행연도 | 순서 | 교본명         | 저자  | 발행연도 |
|----|-----------------|-----|------|----|-------------|-----|------|
| 13 | 신관용 가야금산조 연구    | 황미연 | 1994 | 28 | 알기쉬운 가야고 교본 | 양미나 | 2012 |
| 14 |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 정혜입 | 1998 | 29 |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 성심은 | 2013 |
| 15 | 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산조 | 황병기 | 1998 | 30 | 정명희 가야금병창   | 송명숙 | 2015 |

위 교본에 수록된 가야금산조 유파는 김창조, 최옥삼(함동정월), 정남희, 강태홍, 김병호, 성금연, 김죽파, 김윤덕, 신관용, 황병기, 백인영류의 11종 산조이다. 여섯 유파가 실려 있는 이재숙의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을 제외하면 대체로 한두 유파의 음악이 기록되어 있다. 교본에 수록된 가야금산조의 악장 구성은 유파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네 장단이 공통적으로 구성되었다. 중중모리와 자진모리 사이에는 늦은 자진모리, 굿거리, 엇모리 등이 추가되기도 하였으며, 빠른 악장이 휘모리, 단모리, 세산조시로 분화되었다.

먼저 가야금산조 교본에 표시된 진양조부터 굿거리까지의 장단 빠르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가야금산조 교본의 장단 빠르기 1

| 교본명           | 저자  | 유파   | 장단                   |          |                      |         |          | 비고   |
|---------------|-----|------|----------------------|----------|----------------------|---------|----------|------|
|               |     |      | 진양                   | 중모리      | 중중모리                 | 늦은 자진모리 | 굿거리      |      |
| 가야금 민속곡집      | 권혁태 | 성금연류 | ↓ =35-40             | ↓ =70-90 | ↓ =80-110            |         | ↓ =45-65 | 1972 |
| 가야금교본 (민요·산조) | 황병주 | 성금연류 | ↓ =35                | ↓ =84-92 | ↓ =80-96             |         | ↓ =60-72 | 1972 |
| 가야금교본         | 원한기 | 김윤덕류 | ↓ =35                | ↓ =84-92 | ↓ =80-96             |         |          | 1978 |
|               |     | 성금연류 | ↓ =35                | ↓ =84-92 | ↓ =80-96             |         | ↓ =60-72 |      |
| 가야금산조         |     | 신관용류 | ↓ =37-39             | ↓ =76-84 | ↓ =42-55             |         | ↓ =51-57 | 1980 |
| 가야금산조         | 이재숙 | 김죽파류 | ↓ =30                | ↓ =84    | ↓ =60                |         |          | 1983 |
| 연정가야금보        | 임윤수 | 성금연류 | ↓ =35                | ↓ =84-92 | ↓ =80-96             |         | ↓ =60-72 | 1984 |
| 황병주 가야금교본     | 황병주 | 성금연류 | ↓ =30-35             | ↓ =65-75 | ↓ =65-75             |         | ↓ =60-72 | 1984 |
| 가야금산조         | 이재숙 | 성금연류 | ↓ =30                | ↓ =84    | ↓ =60                |         | ↓ =60    | 1987 |
| 가야금주법과 실습     | 성심은 | 김죽파류 | ↓ =30                | ↓ =84    | ↓ =60                |         |          | 1987 |
|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 최문진 | 강태홍류 | ↓ =30<br>(↓ =84-116) | ↓ =72-88 | ↓ =56-63<br>(↓ =192) |         |          | 1988 |
| 김죽파 가야금곡집     | 문재숙 | 김죽파류 | ↓ =25-30             | ↓ =72-88 | ↓ =58-60             |         |          | 1989 |

| 교본명                        | 저자         | 유파              | 장단                       |           |                          |            |          | 비<br>고 |
|----------------------------|------------|-----------------|--------------------------|-----------|--------------------------|------------|----------|--------|
|                            |            |                 | 진양                       | 중모리       | 중중모리                     | 늦은<br>자진모리 | 굿거리      |        |
| 현대인을 위한<br>가야금교본           | 김정예        | 성금연류            | ↓ =30                    | ↓ =84     | ↓ =60                    |            | ↓ =60    | 1994   |
| 신관용 가야금산조<br>연구            | 황미연        | 신관용류            | ↓ =54-69<br>(↓ =132-144) | ↓ =92-120 | ↓ =69-80<br>(↓ =168-192) |            |          | 1994   |
| 강태홍류<br>가야금산조              | 정해임        | 강태홍             | ↓ =32-37                 | ↓ =67-86  | ↓ =168-192               |            |          | 1998   |
| 정남희제 황병기류<br>가야금산조         | 황병기        | 황병기류            | ↓ =25-35<br>(↓ =76-104)  | ↓ =72-88  | ↓ =54-69                 |            |          | 1998   |
| 가야금산조 창시자<br>김창조와<br>가야금산조 | 양승희        | 김창조류            | ↓ =72-92                 | ↓ =72-80  | ↓ =54-69                 |            |          | 1999   |
| 최옥산류 가야금<br>산조 오선악보        | 박성연        | 최옥산류            | ↓ =35-45                 | ↓ =45-50  | ↓ =50-60                 | ↓ =60-90   |          | 2001   |
| 유대봉제 백인영류<br>가야금산조         | 조영애        | 백인영류            | ↓ =25-35<br>(↓ =72-84)   | ↓ =72-88  | ↓ =54-69                 |            |          | 2002   |
| 가야금교본                      | 박재희        | 성금연류            | ↓ =35-40                 | ↓ =70-90  | ↓ =80-110                |            | ↓ =60-72 | 2002   |
| 최옥삼류<br>가야금산조              | 성애순        | 최옥삼류            | ↓ =30-45<br>(↓ =60-84)   | ↓ =72-84  | ↓ =58-63                 | ↓ =63-92   |          | 2002   |
| 김윤덕 가야금산조                  | 이효분        | 김윤덕류            | ↓ =30-45<br>(↓ =60-84)   | ↓ =72-84  | ↓ =58-63                 | ↓ =63-92   |          | 2004   |
| 가야금 제멋어요!                  | 정길선        | 김윤덕류            | ↓ =30-45                 | ↓ =72-108 | ↓ =60-96                 |            |          | 2005   |
|                            |            | 성금연류            | ↓ =30-45                 | ↓ =72-108 | ↓ =60-96                 |            | ↓ =60-72 |        |
| 가야금의 첫걸음                   | 문재숙        | 성금연류            | ↓ =30-40                 | ↓ =69-72  | ↓ =44-58                 |            | ↓ =44-58 | 2008   |
| 가야금산조<br>여섯바탕전집            | 이재숙        | 김죽파류            | ↓ =30                    | ↓ =84     | ↓ =60                    |            |          | 2008   |
|                            |            | 최옥삼류            | ↓ =30                    | ↓ =84     | ↓ =60                    | ↓ =63      |          |        |
|                            |            | 성금연류            | ↓ =30                    | ↓ =84     | ↓ =60                    |            | ↓ =60    |        |
|                            |            | 강태홍류            | ↓ =30                    | ↓ =84     | ↓ =60                    |            |          |        |
|                            |            | 김병호류            | ↓ =30                    | ↓ =84     | ↓ =60                    |            |          |        |
|                            |            | 정남희제            | ↓ =30                    | ↓ =84     | ↓ =60                    |            |          |        |
| 가야금교본                      | 최상화<br>엄세나 | 성금연류            | ↓ =30-40                 | ↓ =65-75  | ↓ =65-75                 |            | ↓ =60-72 | 2009   |
| 함동정월류<br>가야금산조             | 윤미용        | 함동정월류<br>(최옥산류) | ↓ =30-45                 | ↓ =72-84  | ↓ =58-63                 | ↓ =63-92   |          | 2010   |
| 금암 김병호<br>가야금 산조곡집         | 김남순        | 김병호류            | ↓ =30                    | ↓ =84     | ↓ =60                    |            |          | 2011   |
| 알기쉬운 가야금<br>교본             | 양미나        | 김죽파류            | ↓ =30                    | ↓ =84     | ↓ =60                    |            |          | 2012   |
| 김죽파류<br>가야금산조              | 성심운        | 김죽파류            | ↓ =30                    | ↓ =84     | ↓ =60                    |            |          | 2013   |
| 정명희 가야금병창                  | 송명숙        | 신관용류            | ↓ =30                    | ↓ =60     | ↓ =70                    |            |          | 2015   |

위 표를 보면 진양조는 ↓ =30-45 범위의 빠르기가 가장 많으며, 황미연 편저의 신관용류와 김남순 편저의 김병호류가 각각 ↓ =54-69로 가장 빠른 빠르기이다. 중모리는 ↓ =60-108로 빠르기의 범위가 진양조보다 더 넓게 나타나며, 역시 황미

연 편저의 신관용류가 ♩=92-120로 가장 빠른 빠르기이다. 중중모리의 빠르기 범위는 약 ♩=50-110으로 폭이 넓게 나타나며, 문재숙 편저의 성금연류는 ♩=44-58로 가장 느린 빠르기이다. 늦은 자진모리의 빠르기는 ♩=60-92, 굿거리는 ♩=44-72의 범위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자진모리부터 엇모리까지의 장단 빠르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가야금산조 교본의 장단 빠르기 2

| 교본명                           | 저자  | 유파   | 장단         |                        |            |            |                   | 비고   |
|-------------------------------|-----|------|------------|------------------------|------------|------------|-------------------|------|
|                               |     |      | 자진모리       | 휘모리                    | 단모리        | 세산조시       | 엇모리 <sup>2)</sup> |      |
| 가야금<br>민속곡집                   | 권혁태 | 성금연류 | ♩ =90-120  | ♩ =200-220             |            |            | ♩ =120-130        | 1972 |
| 가야금교본<br>(민요·산조)              | 황병주 | 성금연류 | ♩ =96-144  | ♩ =208-230             |            |            | ♩ =200            | 1972 |
| 가야금교본                         | 원한기 | 김윤덕류 | ♩ =96      | ♩ =144                 | ♩ =208-230 |            |                   | 1977 |
|                               |     | 성금연류 | ♩ =96      | ♩ =144                 |            |            | ♩ =200            |      |
| 가야금산조                         |     | 신관용류 | ♩ =86-112  |                        | ♩ =172-192 |            | ♩ =76-80          | 1980 |
| 가야금산조                         | 이재숙 | 김죽파류 | ♩ =68      | ♩ =132                 |            | ♩ =208     |                   | 1983 |
| 연정가야금보                        | 임윤수 | 성금연류 | ♩ =96-144  | ♩ =208-230             |            |            | ♩ =200            | 1984 |
| 황병주<br>가야금교본                  | 황병주 | 성금연류 | ♩ =90-120  | ♩ =180-200             |            |            | ♩ =200            | 1984 |
| 가야금산조                         | 이재숙 | 성금연류 | ♩ =68-132  | ♩ =208                 |            |            | 표기 없음             | 1987 |
| 가야금주법과<br>실습                  | 성심은 | 김죽파류 | ♩ =72      | ♩ =132                 |            | ♩ =208     |                   | 1987 |
| 강태홍류<br>가야금산조                 | 최문진 | 강태홍류 | ♩ =72-96   | ♩ =160-184<br>(♩ =100) |            | ♩ =192-208 |                   | 1988 |
| 김죽파<br>가야금곡집                  | 문재숙 | 김죽파류 | ♩ =72-92   | ♩ =100-152             |            | ♩ =80-100  |                   | 1989 |
| 현대인을 위한<br>가야금교본              | 김정예 | 성금연류 | ♩ =68-132  | ♩ =208                 |            |            | ♩ =120-130        | 1994 |
| 신관용<br>가야금산조<br>연구            | 황미연 | 신관용류 | ♩ =84-160  | ♩ =168                 |            |            |                   | 1994 |
| 강태홍류<br>가야금산조                 | 정해임 | 강태홍  | ♩ =168-330 | ♩ =366-450             |            | ♩ =190-208 |                   | 1998 |
| 정남희제<br>황병기류<br>가야금산조         | 황병기 | 황병기류 | ♩ =72-116  | ♩ =116-152             | ♩ =96-112  |            | ♩ =69-72          | 1998 |
| 가야금산조<br>창시자<br>김창조와<br>가야금산조 | 양승희 | 김창조류 | ♩ =63-132  |                        |            |            |                   | 1999 |

2) 김병호류와 황병기류의 엇모리는 중중모리 다음에 위치한다.

| 교본명                   | 저자  | 유파              | 장단                     |                          |        |        |        | 비고   |
|-----------------------|-----|-----------------|------------------------|--------------------------|--------|--------|--------|------|
|                       |     |                 | 자진모리                   | 휘모리                      | 단모리    | 세산조시   | 엇모리    |      |
| 최옥산류<br>가야금산조<br>오선악보 | 박성연 | 최옥산류            | ♩ =90-130              | ♩ =120-160               |        |        |        | 2001 |
| 유대봉제<br>백인영류<br>가야금산조 | 조영애 | 백인영류            | ♩ =90-120              | ♩ =180-200               |        |        |        | 2002 |
| 가야금교본                 | 박재희 | 성금연류            | ♩ =90-120              | ♩ =200-220               |        |        | ♩ =200 | 2002 |
| 최옥삼류<br>가야금산조         | 성애순 | 최옥삼류            | ♩ =100-132             | ♩ =160-200               |        |        |        | 2002 |
| 김윤덕<br>가야금산조          | 이효분 | 김윤덕류            | ♩ =100-132             | ♩ =160-200               | 표기 없음  |        |        | 2004 |
| 가야금<br>재밌어요!          | 정길선 | 김윤덕류<br>성금연류    | ♩ =90-144<br>♩ =90-144 | ♩ =116-144<br>♩ =116-144 | 표기 없음  |        |        | 2005 |
| 가야금의<br>첫걸음           | 문재숙 | 성금연류            | ♩ =72-92               | ♩ =80-112                |        |        | ♩ =108 | 2008 |
| 가야금산조<br>여섯바탕전집       | 이재숙 | 김죽파류            | ♩ =68                  | ♩ =132                   |        | ♩ =208 |        | 2008 |
|                       |     | 최옥삼류            | ♩ =68                  | ♩ =208                   |        |        |        |      |
|                       |     | 성금연류            | ♩ =68                  | ♩ =208                   |        |        | ♩ =200 |      |
|                       |     | 강태홍류            | ♩ =68                  | ♩ =132                   |        | ♩ =208 |        |      |
|                       |     | 김병호류            | ♩ =68                  | ♩ =132                   | ♩ =208 |        | ♩ =200 |      |
|                       |     | 정남희제            | ♩ =68                  | ♩ =132                   | ♩ =208 |        |        |      |
| 가야금교본<br>엄새나          | 최상화 | 성금연류            | ♩ =90-120              | ♩ =180-200               |        |        |        | 2009 |
| 함동정월류<br>가야금산조        | 윤미용 | 함동정월류<br>(최옥산류) | ♩ =100-132             | ♩ =160-200               |        |        |        | 2010 |
| 금암 김병호<br>가야금<br>산조곡집 | 김남순 | 김병호류            | ♩ =68                  | ♩ =132                   | ♩ =60  |        | ♩ =200 | 2011 |
| 알기쉬운<br>가야금 교본        | 양미나 | 김죽파류            | ♩ =72                  | ♩ =132                   |        | ♩ =208 |        | 2012 |
| 김죽파류<br>가야금산조         | 성심은 | 김죽파류            | ♩ =72                  | ♩ =132                   |        | ♩ =208 |        | 2013 |
| 정명희<br>가야금병창          | 송명숙 | 신관용류            | ♩ =90                  | ♩ =100                   |        |        | ♩ =120 | 2015 |

위 표에서 자진모리의 빠르기는 ♩=60-160로 다른 장단에 비해 빠르기의 변화 폭이 매우 넓게 나타난다. 휘모리 역시 교본과 유파에 따라 빠르기가 매우 다른데, 동일한 성금연류 휘모리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숙 편저의 교본에서는 ♩=80-112로 다소 느린 반면에, 황병주와 임윤수 편저의 교본에서는 ♩=208-230로 매우 빠르다. 단모리 역시 황병기 편저의 황병기류는 ♩=96-112로 다소 느린 반면에, 원한기 편저의 김윤덕류는 ♩=208-230로 매우 빠르다. 세산조시도 문재숙 편저의 김죽파류는 ♩=80-100으로 다소 느린 반면에, 이재숙 편저의 김죽파류는 ♩=208로 매우 빠르다. 엇모리는 기준 박이 ♩, ♩, ♩ 등의 세 가지로 표시되는데, ♩=108-200의 범위로 나타난다.

## 2) 거문고산조

거문고산조 교본은 <표 5>에 제시된 총 2종을 선정하였다. 거문고산조 교본은 가야금에 비해 교본이 적은 편이었는데, 본고에서 선정한 2종은 정대석과 양승경이 각각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출판한 교본이다.

<표 5> 거문고산조 교본 목록

| 순서 | 교본명             | 저자  | 발행연도 |
|----|-----------------|-----|------|
| 1  | 거문고 산조 세바탕      | 정대석 | 1990 |
| 2  |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 모음집 | 양승경 | 2009 |

위 교본에 수록된 거문고산조 유파는 한갑득, 신태동, 김윤덕류의 3종 산조이다. 정대석의 악보에는 세 유파가 모두 실려 있고, 양승경의 악보에는 한갑득류만 수록되어 있다. 두 교본에 수록된 3종의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자진모리의 세 장단이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파에 따라 악장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교본에 따라 동일한 유파임에도 악장 구성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한갑득류에는 엇모리, 중중모리, 늦은 자진모리, 휘모리가 더 나타났고, 신태동류에는 중중모리, 엇모리, 휘모리가 추가되었다.

이들 교본에 표시된 각 악장별 장단 빠르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거문고 교본의 장단 빠르기

| 교본명                  | 저자  | 유파   | 장단        |           |                   |           |            |            |             | 비고   |
|----------------------|-----|------|-----------|-----------|-------------------|-----------|------------|------------|-------------|------|
|                      |     |      | 진양조       | 중모리       | 엇모리 <sup>3)</sup> | 중중모리      | 늦은<br>자진모리 | 자진모리       | 휘모리         |      |
| 거문고산조<br>세바탕         | 정대석 | 한갑득  | ♩ = 30-35 | ♩ = 84-92 | ♩ = 200           | ♩ = 65-75 |            | ♩ = 90-120 |             | 1990 |
|                      |     | 신태동  | ♩ = 30-35 | ♩ = 84-92 | ♩ = 200           | ♩ = 65-75 |            | ♩ = 90-120 | ♩ = 160-200 |      |
|                      |     | 김윤덕  | ♩ = 30-35 | ♩ = 84-92 |                   |           |            | ♩ = 90-120 |             |      |
| 한갑득류<br>거문고산조<br>모음집 | 양승경 | 한갑득류 | ♩ = 30-45 | ♩ = 60-80 |                   | ♩ = 50-60 | ♩ = 60-90  | ♩ = 90-130 | ♩ = 120-200 | 2009 |

위 표를 보면 교본 저자에 따라 각 장단의 빠르기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정대석 편저의 세 유파의 경우 진양조는 ♩ = 30-35, 중모리는 ♩ = 84-92, 중중모리는

3) 『거문고산조 세바탕』에 수록된 신태동류의 엇모리는 중중모리 다음에 위치하고 있다.

♩=65-75, 자진모리는 ♩=90-120, 엇모리는 ♩=200, 휘모리는 ♩=160-200으로 일괄 표시하였다. 양승경 편저 한갑득류의 경우 진양조는 ♩=30-45, 중모리는 ♩=60-80, 중중모리는 ♩=50-60, 늦은 자진모리는 ♩=60-90, 자진모리는 ♩=90-130, 휘모리는 ♩=120-200로 표시되어 있다. 각 장단 별 빠르기가 대체로 유사하나 중모리와 중중모리의 경우 양승경 편저 악보가 다소 느리게 표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칠현악기 산조

칠현악기 산조에는 해금과 아쟁이 해당된다. 본고에서 선정한 두 악기 산조 교본을 알아보고, 각 교본에 표시된 빠르기를 살펴보겠다.

### 1) 해금산조

해금산조 교본은 <표 7>에 제시된 총 6종을 선정하였다. 이들 교본은 1980년대 부터 현재까지 발행된 교본으로, 2-4개 유파의 음악이 실려 있다.

<표 7> 해금산조 교본 목록

| 순서 | 교본명     | 저자      | 발행연도 | 순서 | 교본명        | 저자      | 발행연도 |
|----|---------|---------|------|----|------------|---------|------|
| 1  | 해금산조연구  | 최태현     | 1988 | 4  | 해금산조       | 강덕원·양경숙 | 2009 |
| 2  | 해금산조    | 최태현·안지영 | 1999 | 5  | 해금산조와 산조합주 | 안재숙     | 2009 |
| 3  | 해금산조연구Ⅱ | 최태현     | 2008 | 6  | 해금산조 네바탕   | 최태현     | 2014 |

위 6종의 교본에 수록된 해금산조 유파는 지영희류, 한범수류, 서용석류, 김영재류의 4종 산조이다. 진양조, 중모리, 중중중모리, 자진모리의 네 장단을 기본으로 지영희류에는 굿거리가, 서용석류에는 빠른 중중모리와 엇모리가, 김영재류에는 엇모리와 단모리가 추가되어 있다.

해금산조 6종 교본에 표시된 각 악장별 장단 빠르기를 정리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해금산조 교본의 장단 빠르기

| 교본                | 저자         | 유파   | 장단       |          |            |            |            |            |           |            | 비고   |
|-------------------|------------|------|----------|----------|------------|------------|------------|------------|-----------|------------|------|
|                   |            |      | 진양조      | 중모리      | 중중모리       | 굿거리        | 빠른<br>중중모리 | 엇모리4)      | 자진모리      | 단모리        |      |
| 해금산조<br>연구        | 최태현        | 지영희류 | ↓ =35-45 | ↓ =85-90 | ↓ =70-80   | ↓ =80-85   |            |            | ↓ =90-100 |            | 1988 |
|                   |            | 한범수류 | ↓ =35-45 | ↓ =85-90 | ↓ =70-80   |            |            |            | ↓ =90-100 |            |      |
| 해금산조              | 최태현<br>안지영 | 한범수류 | ↓ =35-45 | ↓ =85-90 | ↓ =70-80   |            |            |            | ↓ =90-100 |            | 1999 |
|                   |            | 지영희류 | ↓ =35-45 | ↓ =85-90 | ↓ =70-80   | ↓ =80-90   |            |            | ↓ =90-100 |            |      |
|                   |            | 김영재류 | ↓ =20-30 | ↓ =90    | ↓ =70      |            |            | ♩ =200     | ↓ =80-90  | 표기 없음      |      |
| 해금산조<br>연구Ⅱ       | 최태현        | 지영희류 | ↓ =35-45 | ↓ =85-90 | ↓ =70-80   | ↓ =80-85   |            |            | ↓ =90-100 |            | 2008 |
|                   |            | 한범수류 | ↓ =35-45 | ↓ =85-90 | ↓ =70-80   |            |            |            | ↓ =90-100 |            |      |
|                   |            | 김영재류 | ↓ =35-45 | ↓ =85-90 | ↓ =70-80   |            |            | ♩ =80-90   | ↓ =90-100 | ↓ =208-230 |      |
|                   |            | 서용석류 | ↓ =35-45 | ↓ =85-90 | ↓ =70-80   |            |            |            | ↓ =90-100 |            |      |
| 해금산조              | 강덕원<br>양경숙 | 한범수류 | ↓ =35-40 | ↓ =80-90 | ♩ =180-200 |            |            |            | ↓ =80-105 |            | 2009 |
|                   |            | 지영희류 | ↓ =35-40 | ↓ =80-90 | ♩ =180-200 | ♩ =200-230 |            |            | ↓ =80-105 |            |      |
|                   |            | 서용석류 | ↓ =35-40 | ↓ =80-90 | ♩ =180-200 |            | ♩ =200-220 | ♩ =180-200 | ↓ =80-105 |            |      |
| 해금산조<br>와<br>산조합주 | 안재숙        | 한범수류 | ↓ =30    | ↓ =70    | ↓ =58      |            |            |            | ↓ =84     |            | 2009 |
|                   |            | 지영희류 | ↓ =30    | ↓ =70    | ↓ =70      | ↓ =80      |            |            | ↓ =84     |            |      |
|                   |            | 서용석류 | ↓ =27    | ↓ =63    | ↓ =56-58   |            | ↓ =70      | ♩ =208     | ↓ =84     |            |      |
| 해금산조<br>네바탕       | 최태현        | 지영희류 | ↓ =35-45 | ↓ =85-90 | ↓ =70-80   | ↓ =80-85   |            |            | ↓ =90-100 |            | 2014 |
|                   |            | 한범수류 | ↓ =35-45 | ↓ =85-90 | ↓ =70-80   |            |            |            | ↓ =90-100 |            |      |
|                   |            | 서용석류 | ↓ =35-45 | ↓ =85-90 | ↓ =70-80   |            |            | ♩ =80-90   | ↓ =90-100 |            |      |
|                   |            | 김영재류 | ↓ =35-45 | ↓ =85-90 | ↓ =70-80   |            |            | ♩ =80-90   | ↓ =90-100 | ↓ =208-230 |      |

위 표를 보면 진양조는 ↓ =35-45의 빠르기가 가장 많고, ↓ =27로 느리게 시작되기도 한다. 중모리는 대체로 ♩ =80-90의 빠르기인데, 안재숙 편저 악보에서는 ↓ =63 혹은 ↓ =70으로 약간 더 느리게 표시되었다. 중중모리는 ↓ =70-80 혹은 ♩ =180-200의 빠르기로 표시되었으며, 일부 악보에는 ↓ =56-58로 느리게 표시되어 있다. 자진모리는 ↓ =90-100의 빠르기가 가장 많으며, ↓ =80-105의 범위로 형성되어 있다. 굿거리는 대체로 ↓ =80-85 혹은 ♩ =200-230의 빠르기이며, 빠른 중중모리는 ♩ =200-220으로, 단모리는 ↓ =208-230으로 표기되었다. 엇모리는 편저자에 따라 빠르기 표시 차이가 많이 났는데, 동일한 서용석류 산조임에도 불구하고 최태현은 ♩ =80-90, 강덕원·양경숙은 ♩ =180-200으로 표기하였다.

4) 서용석류 해금산조는 엇모리가 자진모리 다음에 나온다.

## 2) 아쟁산조

아쟁산조 교본은 <표 9>에 제시된 총 2종을 선정하였다. 아쟁산조 교본은 다른 악기 산조보다 교본이 적은 편이었는데, 본고에서 선정한 2종의 교본은 2000년대 이후에 출판되었다.

<표 9> 아쟁산조 교본 목록

| 순서 | 교본명         | 저자  | 발행연도 |
|----|-------------|-----|------|
| 1  | 실용 아쟁교본     | 안수길 | 2000 |
| 2  | 박대성류 아쟁산조연구 | 김용호 | 2012 |

위 교본에 수록된 아쟁산조 유파는 박종선류와 박대성류의 2종 산조이다. 두 산조 모두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네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교본에 표시된 각 악장별 장단 빠르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아쟁산조 교본의 장단 빠르기

| 교본명            | 저자  | 유파   | 장단       |          |          |           | 비고   |
|----------------|-----|------|----------|----------|----------|-----------|------|
|                |     |      | 진양       | 중모리      | 중중모리     | 자진모리      |      |
| 실용 아쟁교본        | 안수길 | 박종선류 | ♩ =30-35 | ♩ =65-75 | ♩ =80-92 | ♩ =90-110 | 2000 |
| 박대성류<br>아쟁산조연구 | 김용호 | 박대성류 | ♩ =40    | ♩ =60-70 | ♩ =45-50 | ♩ =80-100 | 2012 |

두 교본에 표기된 장단 빠르기는 중중모리를 제외하면 대체로 유사하다. 진양조는 ♩ =30-40, 중모리는 ♩ =60-75, 자진모리는 ♩ =80-110의 범위로 형성되어 있다. 중중모리는 박종선류의 경우 ♩ =80-92인 반면, 박대성류의 경우 ♩ =45-50으로 표기되었다. 두 악보의 중중모리 빠르기 표시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관악기 산조

### 1) 대금산조

대금산조 교본은 <표 11>에 제시된 총 8종을 선정하였다. 대금산조 교본은 1980년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한 유파의 산조 악보로 구성되었다.

<표 11> 대금산조 교본 목록

| 순서 | 교본명       | 저자  | 발행연도 | 순서 | 교본명          | 저자  | 발행연도 |
|----|-----------|-----|------|----|--------------|-----|------|
| 1  | 서용석류 대금산조 | 황규일 | 1988 | 5  | 대금교본         | 최성남 | 1987 |
| 2  | 대금산조      | 신용문 | 1991 | 6  | 한범수류 대금산조    | 신용문 | 2003 |
| 3  | 원장현류 대금산조 | 임재원 | 1991 | 7  | 죽사 한범수 대금산조보 | 박용호 | 2010 |
| 4  | 한주환류 대금산조 | 임재원 | 1994 | 8  | 이생강류 대금산조    | 강중화 | 2013 |

위 교본에 수록된 대금산조 유파는 한주환, 한범수, 김동진, 서용석, 이생강, 원장현류의 6종 산조이다. 이들 6종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네 장단이 공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용석류만에 엇모리와 동살풀이가 추가되어 있다. 이들 교본에 표시된 각 악장별 장단 빠르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대금산조 교본의 장단 빠르기

| 교본명          | 저자  | 유파   | 장단      |         |           |           |       |       | 비고   |
|--------------|-----|------|---------|---------|-----------|-----------|-------|-------|------|
|              |     |      | 진양조     | 중모리     | 중중모리      | 자진모리      | 엇모리   | 동살풀이  |      |
| 서용석류 대금산조    | 황규일 | 서용석류 | ♩=30-35 | ♩=70-75 | ♩=60-65   | ♩=80-105  | ♩=100 | ♩=100 | 1988 |
| 대금산조         | 신용문 | 한범수류 | ♩=30-35 | ♩=70-75 | ♩=60-65   | ♩=80-105  |       |       | 1991 |
| 원장현류 대금산조    | 임재원 | 원장현류 | ♩=40    | ♩=70-80 | ♩=60      | ♩=100-105 |       |       | 1991 |
| 한주환류 대금산조    | 임재원 | 한주환류 | ♩=35-45 | ♩=70-80 | ♩=180-195 | ♩=80-105  |       |       | 1994 |
| 대금교본         | 최성남 | 김동진류 | ♩=30-35 | ♩=85-92 | ♩=80-95   | ♩=96-140  |       |       | 1987 |
| 한범수류 대금산조    | 신용문 | 한범수류 | ♩=30-35 | ♩=70-75 | ♩=60-65   | 표기 없음     |       |       | 2003 |
| 죽사 한범수 대금산조보 | 박용호 | 한범수류 | ♩=30-35 | ♩=84    | ♩=60-65   | ♩=68      |       |       | 2010 |
| 이생강류 대금산조    | 강중화 | 이생강류 | ♩=30-35 | ♩=70-80 | ♩=180-195 | 표기 없음     |       |       | 2013 |

위 표를 보면 진양조는 빠르기의 범위가 크지 않으며, ♩=30-35의 빠르기가 가장 많다. 중모리의 빠르기는 대체로 ♩=70-80의 범위에서 설정되었으며, 김동진류의 빠르기가 ♩=85-92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표시되었다. 중중모리는 ♩=60-65 혹은 ♩=180-295의 빠르기로 표시되었으며, 중모리와 마찬가지로 김동진류의 빠르기가 ♩=80-95로 가장 빠른 빠르기를 보인다. 자진모리는 ♩=80-105의 빠르기가 가장 많으며, 박용호 편저의 한범수류가 ♩=68로 다소 느린 빠르기인 것과 달리 김동진류는 ♩=96-140으로 매우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다. 그밖에 서용석류의 엇모리는 ♩=100, 동살풀이는 ♩=100이다. 대금산조는 한 장단 내의 빠르기 범위가 비교적 좁은 편이며 자진모리에서 가장 큰 빠르기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2) 피리산조

피리산조 교본은 <표 13>에 제시된 총 2종을 선정하였다. 피리산조 교본 역시 한 유파의 산조 악보로 구성되었다.

&lt;표 13&gt; 피리산조 교본 목록

| 순서 | 교본명      | 저자  | 발행연도 |
|----|----------|-----|------|
| 1  | 피리산조연구   | 박범훈 | 1985 |
| 2  | 지영희 피리풍류 | 박승률 | 2007 |

위 교본에 수록된 피리산조 유파는 지영희와 박범훈류의 2종 산조이다. 이들 2종 산조는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네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본에 표시된 각 악장별 장단 빠르기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lt;표 14&gt; 피리산조 교본의 장단 빠르기

| 교본명      | 저자  | 유파   | 장단        |           |           |           | 비고   |
|----------|-----|------|-----------|-----------|-----------|-----------|------|
|          |     |      | 진양조       | 중모리       | 중중모리      | 자진모리      |      |
| 피리산조연구   | 박범훈 | 박범훈류 | ♩ = 35    | ♩ = 84    | ♩ = 80    | ♩ = 96    | 1985 |
| 지영희 피리풍류 | 박승률 | 지영희류 | ♩ = 30-40 | ♩ = 50-60 | ♩ = 50-60 | ♩ = 72-76 | 2007 |

위 표를 보면 두 산조의 진양조는 빠르기의 범위가 그리 크지 않은 ♩ = 30-40로 나타난다. 반면에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빠르기는 두 산조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 중모리의 경우 지영희류는 ♩ = 50-60으로 느린 반면, 박범훈류는 ♩ = 84로 빠르게 나타났다. 중중모리에서도 지영희류는 ♩ = 50-60인 반면, 박범훈류는 ♩ = 80으로 빠르게 나타났으며, 자진모리에서도 지영희류는 ♩ = 72-76인 반면, 박범훈류는 ♩ = 96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진양조를 제외하면 지영희류가 박범훈류보다 다소 느림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본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악기군별 빠르기의 범위를 검토하고 이를 음반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 IV. 교본과 음반의 산조 빠르기 비교

산조의 장단은 악기나 유파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이 장에서는 교본에 표기된 빠르기를 음반의 그것과 비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음반에 담긴 장단을 기준으로 분석하겠다. 먼저 산조교본의 장단별 빠르기 범위를 악기별로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악기별 산조교본의 빠르기

| 악기군  | 악기  | 장단       |           |           |                        |          |           |                         |           |
|------|-----|----------|-----------|-----------|------------------------|----------|-----------|-------------------------|-----------|
|      |     | 진양조      | 중모리       | 중중모리      | 늦은<br>자진모리             | 굿거리      | 자진모리      | 휘모리                     | 세산조시      |
| 발현악기 | 가야금 | ↓ =25-69 | ↓ =60-120 | ↓ =42-110 | ↓ =60-92               | ↓ =44-72 | ↓ =60-144 | ↓ =116-230<br>↓ =80-208 | ↓ =80-208 |
|      | 거문고 | ↓ =30-45 | ↓ =60-92  | ↓ =50-75  | ↓ =60-90               |          | ↓ =90-130 | ↓ =160-200              |           |
| 찰현악기 | 해금  | ↓ =27-45 | ↓ =63-90  | ↓ =56-80  | ↓ =80-85<br>↓ =220-230 |          | ↓ =80-105 |                         |           |
|      | 아쟁  | ↓ =30-40 | ↓ =60-75  | ↓ =45-92  |                        |          | ↓ =80-110 |                         |           |
| 관악기  | 대금  | ↓ =30-45 | ↓ =70-92  | ↓ =60-95  |                        |          | ↓ =68-140 |                         |           |
|      | 피리  | ↓ =30-40 | ↓ =50-84  | ↓ =50-80  |                        |          | ↓ =72-96  |                         |           |

위 표를 보면, 가야금과 거문고는 같은 발현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장단 빠르기에 큰 차이를 보인다. 가야금은 동일 장단 내에서 큰 폭으로 빠르기가 변화하는 반면에, 거문고는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완만한 빠르기로 진행된다. 찰현악기의 경우 진양조와 중모리에서는 해금이 아쟁보다 더 넓은 폭으로 빠르기가 변화한다면,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서는 아쟁이 해금보다 빠르기의 변화 폭이 다소 넓게 나타난다.

관악기의 경우 진양조는 대금과 피리가 비슷한 빠르기이나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에서는 대금이 피리보다 다소 빠른 속도로 넓은 폭의 변화를 보인다. 특히 대금의 자진모리 빠르기는 가야금처럼 매우 큰 폭의 변화를 보인다. 종합하자면 한 장단 내에서 가야금의 빠르기가 가장 큰 폭으로 변화되며, 그 외 악기의 빠르기 변화 폭은 비교적 완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명인들이 연주한 산조의 악장별 빠르기를 분석하여 교본의 빠르기와 비교하겠다. 다음의 <표 16>은 가야금의 김죽파·함동정월·성금연, 거문고의 신채동, 해금의 김영재, 아쟁의 박종선, 대금의 이생강·서용석, 피리의 박범훈 등 9인의 산조 음원을 분석한 장단별 빠르기이다.

&lt;표 16&gt; 연주음원의 산조 빠르기

| 악기  | 명인   | 장단        |           |           |            |           |           |         |         | 비고   |
|-----|------|-----------|-----------|-----------|------------|-----------|-----------|---------|---------|------|
|     |      | 진양조       | 중모리       | 중중모리      | 늦은<br>자진모리 | 긋거리       | 자진모리      | 휘모리     | 세산조시    |      |
| 가야금 | 김죽과  | ♩ ≒ 40-45 | ♩ ≒ 80    | ♩ ≒ 80    |            |           | ♩ ≒ 90    | ♩ ≒ 130 | ♩ ≒ 200 | 1994 |
|     | 함동정월 | ♩ ≒ 35-40 | ♩ ≒ 75    | ♩ ≒ 80    | ♩ ≒ 80     |           | ♩ ≒ 100   | ♩ ≒ 140 |         | 1994 |
|     | 성금연  | ♩ ≒ 40-45 | ♩ ≒ 80    | ♩ ≒ 75    |            | ♩ ≒ 80    | ♩ ≒ 85    | ♩ ≒ 180 |         | 1994 |
| 거문고 | 신쾌동  | ♩ ≒ 50    | ♩ ≒ 70-75 | ♩ ≒ 75    |            |           | ♩ ≒ 80    | ♩ ≒ 130 |         | 2001 |
| 해금  | 김영재  | ♩ ≒ 40-45 | ♩ ≒ 75    | ♩ ≒ 70-75 |            | ♩ ≒ 70-75 | ♩ ≒ 80-90 |         |         | 1993 |
| 아쟁  | 박종선  | ♩ ≒ 40    | ♩ ≒ 70    | ♩ ≒ 65-70 |            |           | ♩ ≒ 85-90 |         |         | 1991 |
| 대금  | 이생강  | ♩ ≒ 40    | ♩ ≒ 70-80 | ♩ ≒ 60    |            |           | ♩ ≒ 100   |         |         | 1997 |
|     | 서용석  | ♩ ≒ 35-40 | ♩ ≒ 75-80 | ♩ ≒ 60-65 |            |           | ♩ ≒ 90    |         |         | 1997 |
| 피리  | 박범훈  | ♩ ≒ 35-40 | ♩ ≒ 80    | ♩ ≒ 70-75 |            |           | ♩ ≒ 90    |         |         | 2004 |

산조 음원의 장단별 빠르기는 교본에 비해 비교적 좁은 폭으로 변화한다. 각 악기별 빠르기의 범위를 종합해보면, 진양조의 빠르기는 ♩ ≒ 35-45, 중모리는 ♩ ≒ 70-80, 중중모리는 ♩ ≒ 60-80, 자진모리는 ♩ ≒ 80-100, 휘모리는 ♩ ≒ 130-180으로 나타난다. 진양조와 중모리는 빠르기 변화폭이 좁은 반면에, 중중모리와 자진모리에서는 배로 넓어지고 휘모리는 더욱 넓어진다. 즉, 실제 연주에서는 각 연주자의 장단 빠르기가 교본에 비해 일정하며, 빠른 장단으로 갈수록 연주자 간 기본 속도 차이가 커지고 있다.

## V. 맺음말

지금까지 교본과 음반에 나타난 산조 장단의 빠르기를 조사하여 각 악기별 빠르기 편차를 분석하였다. 산조 장단은 정확한 박의 개념이 아닌 호흡을 통한 개인의 한배로 좌우되는데, 이 연구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 본고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조의 빠르기는 ‘만·중·삭’의 세틀형식과 같이 ‘느림에서 빠름’으로 진행된다. 가야금은 산조의 기본 틀인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의 네 장단에 늦은 자진모리, 긋거리, 엇모리, 휘모리, 단모리, 세산조시 등이 추가되면서 장단 구성 및 빠르기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관악기의 장단구성은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에 간혹 긋거리, 동살풀이 등이 추가되어 비교적 적었

으며 빠르기의 편차도 크지 않았다.

둘째, 산조의 기본 틀인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의 빠르기를 비교해보면 가야금 산조는 진양조  $\downarrow=25$ 의 빠르기에서 자진모리의 속도가 최대  $\downarrow=144$ 로 다른 산조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느리게 연주하여 끝날 때는 가장 빠른 속도임을 알 수 있었다. 관악기 산조의 경우 대개 진양조는  $\downarrow=30-45$ 이며, 자진모리는 약  $\downarrow=90$ 의 형태로 가야금 산조에 비해 완만하게 빠르기 틀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연주법과 관련되는데, 가야금은 오른손 손가락을 모두 사용하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의 연주가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 교본에 제시된 산조의 빠르기는 시대와 악기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드러낸다. 조선 후기 삭대엽의 과생곡인 ‘농(弄)·낙(樂)·편(扁)’의 ‘편’ 계열의 빠르기가  $\downarrow=70$ 으로 산조의 중모리 속도와 비슷한데, 산조가 19세기 후반에 생겨난 음악인 점을 감안한다면 삭대엽 발생 이후 음악의 빠르기가 2배 이상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명인들의 음원은 교본에 비해 빠르기 변화폭이 크지 않았다. 각 연주자의 장단 빠르기가 교본에 비해 일정하였으며, 빠른 장단으로 갈수록 연주자 간 기본 속도 차이가 커졌다. 특히 교본과 마찬가지로 가야금 산조에서 자진모리와 휘모리 등의 빠른 장단에서 속도 변화폭이 더욱 크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현상이 가야금 산조의 악장 분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교본과 연주음원의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산조 장단의 빠르기 기준을 제언할 수 있다. 진양조의 빠르기는  $\downarrow \approx 30-45$ , 중모리는  $\downarrow \approx 60-80$ , 중중모리는  $\downarrow \approx 50-90$ , 자진모리는  $\downarrow \approx 80-110$ , 휘모리는  $\downarrow \approx 130-180$ 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물론 산조에서 연주자마다 다른 한배는 산조의 음악적 특성이자 연주자의 개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대체적인 빠르기의 기준이 설정된다면 학생들이 한배를 이해하고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그런데 산조 교본의 빠르기 표시는 각 악보마다 기준 박이 다르다. 같은 중중모리 장단이라도 악보에 따라 ‘ $\downarrow$ ’·‘ $\downarrow$ ’ 음표로 표시되기도 하고, 휘모리도 ‘ $\downarrow$ ’·‘ $\downarrow$ ’의 두 가지를 기준 박으로 삼는다. 악보의 기준 박을 어떤 음표로 하느냐에 따라 셈여림과 강약 그리고 선율의 진행에서의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장단마다의 기준 박 정립 모색이 필요하다.

서양음악 체계의 잣대로 우리 전통음악을 바라보는 것은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서로의 음악을 교류하고 또 세계 속의 우리음악을 알리기 위해서는 오선보와 같은 보편적인 소통수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체계적 정비를 통한 국악 교본의 방향성 제고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참고문헌

- 권오성 (2009). 散調의 淵源과 形式構造. **藝術論文集**, 48, 97-123.
- 김연영 (2013). 산조 장단을 활용한 장단의 한배 개념 지도방안.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초등음악교육전공, 인천.
- 김일륜 (2009). 성금연류 가야금산조의 변천 및 교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해숙 (1987). 산조연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김해숙, 백대웅, 최태현 (1995). 전통음악개론. 서울: 도서출판 어울림.
- 송방송 (2012). 한겨레음악대사전. 서울: 보고서.
- 유선미 (2010). 판소리를 수용한 산조의 음악 양식에 관한 연구: 판소리와 가야금산조의 장단·조·시김새 비교 고찰을 통해. **판소리학회지**, 29, 131-168.
- 이보형 (1996). 散調의 長短과 리듬형의 源流: 산조의 판소리 음악 수용론을 중심으로. **동양음악**, 18, 131-148.
- 임미선 (2008). 서평: 가야금산조 채보사의 전무후무한 명작-이재숙 편저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韓國音樂史學報**, 41, 349-357.
- 장사훈 (1985). 최신 국악총론.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정화자 (1984). 散調 旋律型과 杖鼓長短과의 관계: 金竹坡 伽倻琴散調의 진양조와 중모리에 基하여. **예술논문집**, 23, 144-173.
- 최현 (2009). 국악 채보의 제 문제. **동양음악**, 32, 97-132.
- 한명희 (1994). 우리가락 우리문화. 서울: 따비발.

### <산조교본>

- 강덕원·양경숙 편저 (2009). 해금산조.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 강순영 (1980). 가야금산조. 출판사 불명.
- 강종화 (2013). 이생강류 대금산조. 전주: 아사히출판.
- 권혁태 (1972). 가야금 민속곡집. 출판지불명: 가야회.
- 김남순 (2011). 금암 김병호류 가야금산조곡집.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김용호 (2012). 박대성류 아쟁산조연구. 대구: 도서출판 세종.
- 김정예 (1994). 현대인을 위한 가야금 교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문재숙 (1989). 김죽파 가야금곡집.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_\_\_\_\_ (2008). 가야금 첫걸음.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 박범훈 (1985). 피리산조연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박성연 (2001). 최옥산류 가야금산조 오선악보. 서울: 이가책.
- 박승률 (2007). 지영희 피리풍류. 서울: 민속원.
- 박용호 (2010). 죽사 한범수 대금산조보. 서울: 은하출판사.
- 박재희 (2002). 가야금교본. 서울: 삼호뮤직.
- 성심은 (1987). 가야금 주법과 실습.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_\_\_\_\_ (2013).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성애순 (2002).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송명숙 (2015). 정명희 가야금병창. 서울: 은하출판사.
- \_\_\_\_\_ (1991). 한범수류 대금산조. 서울: 은하출판사.
- 안수길 (2000). 실용 아쟁교본. 서울: 한성음악출판사.
- 안재숙 (2009). 해금산조와 산조합주. 서울: 은하출판사.
- 양미나 (2012). 알기쉬운 가야고 교본. 안성: 아시아음악학회.
- 양승경 (2009). 한갑득류 거문고 산조모음집. 서울: 수서원.
- 양승희 (1999). 가야금 산조 창시자 김창조와 가야금 산조. 서울: 도서출판 마루.
- 원한기 (1978). 가야금교본. 서울: 수문당.
- 윤미용 (2010). 함동정월류 가야금산조. 서울: 은하출판사.
- 이재숙 (1983). 김죽파류 가야금산조. 서울: 수문당.
- \_\_\_\_\_ (1987). 성금연류 가야금산조.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_\_\_\_\_ (2008). 가야금산조 여섯바탕전집. 서울: 은하출판사.
- 이효분 (2004). 김윤덕 가야금산조. 서울: 은하출판사.
- 임윤수 (1984). 연정가야금보. 서울: 태림출판사.
- 임재원 (1991). 원장현류 대금산조. 서울: 한소리.
- \_\_\_\_\_ (1994). 한주환류 대금산조. 서울: 어울림.
- 정길선 (2005). 가야금 재밌어요!. 서울: 현대음악출판사.
- 정대석 (1990). 거문고 산조 세바탕. 서울: 은하출판사.
- 정해임 (1998).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대구: 경북대학교출판부.
- 조영애 (2002). 유대봉제 백인영류 가야금산조. 서울: 은하출판사.
- 최문진 (1988).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상화, 엄세나 (2009). 가야금 교본. 서울: 민속원.
- 최성남 (1987). 대금교본. 고양: 아름출판사.
- 최태현 (1998). 해금산조연구.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_\_\_\_\_ (2008). 해금산조연구Ⅱ. 서울: 민속원.
- 최태현 (2014). 해금산조 네바탕.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_\_\_\_\_, 안지영 (1999). 해금산조. 서울: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 황규일 (1998). 서용석류 대금산조. 서울: 은하출판사.
- 황미연 (1994). 신관용류 가야금산조 연구. 전주: 신아출판사.
- 황병기 (1998). 정남희제 황병기류 가야금산조.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황병주 (1972). 가야금교본(민요·산조). 서울: 은하출판사.
- \_\_\_\_\_ (1984). 황병주 가야금교본. 서울: 은하출판사.

<음원자료>

- 『93 일요 명인명창전 9: 김영재 해금연주회』(1993). 서울: 서울음반.
- 『거문고산조』(2001). 서울: CJ뮤직(주).
- 『대금산조, 아쟁산조』(1991). 서울: 아세아레코드.
- 『뿌리깊은나무 산조전집』(1997). 서울: 신나라레코드.
- 『한국의 전설적 가야금산조 명인』(1994). 서울: 킹레코드.

## ABSTRACT

# An analysis on tempo of the Sanjo Rhythm

Kim Il-Ryun · Park Mi-Jeong

The *Sanjo* Rhythm, having a structure that become gradually faster even within a single movement, is very dynamic in its tempo depending on the conditions of a performance or the performer and is very different in tempo indications depending on the instructional book.

As such,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tempo by instrument as shown in instructional books and records, determine the tempo status, and suggest standards for the Korean classical educational scene.

The results of the study yielded large differentials of *Hanbae* (tempo and length of time) even within the same rhythm, depending on the performer and the instrument characteristics; specifically, *Gayageum* had the largest tempo deviation within a single beat, and as the beat became faster, the degree of deviation was larger. As wind instruments were dependent on breathing to maintain the sound, the tempo was determined by the individual *Hanbae*. Moreover, this study confirmed the tendency for instructional books to have a wider range of tempo compared to musical recordings.

Key words: *Sanjo*, music tempo, *Jangdan*(rhythm).

투고일: 2015년 5월 31일, 심사(수정): 7월 30일(8월 4일), 게재확정일: 8월 18일